

마르 6,30 -34 (2024/7/21 연중 제 16 주일)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창세 2,1)

성경은 가장 첫 이야기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전하며 이렛날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모두 마치시고 쉬셨고 그날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탈출 20, 10)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휴식을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며, 주일에 쉬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느님과 함께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군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 덕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생명의 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도 수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덕분에 많은 사람이 잘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휴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해보고 같이 나누시길 권장합니다.

- 1) 혹시 일이 너무 많아 정신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 2) 피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을 느꼈는지 나누어 봅시다.